

# 불교학연구 원전이해 앞서야

## 불교문화연구원 '현대불교학 방법론' 세미나

### 팔리경전 해독 자료 비교분석 토대

### 필사본 목록 입수 원본 접근 열쇠

불교학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 경향을 통해 불교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이 지난 18일 개최한 '현대불교학 방법론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불교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많지만 막상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지에 대해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학 연구는 어디서 출발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외국에서 돌아온 지 몇 년 안 된 소장학자들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래

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미국(우제선), 독일(안성두), 영국(황순일), 일본(이자라)에서 최근 2~3년 새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들에게 주제 발표를 맡겼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불교학 프로그램을 소개한 우제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학에 있어 체계적 조류는 원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헌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불교학의 중심지 함부르크 대학에서 슈미트하우젠 교수를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은 안성두(동국대 강사)씨는 "독일의 경우 원전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할 만한

텍스트(정판본)를 만드는 것이 문헌학적 연구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세계팔리성전학회장 고프리치 교수가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황순일(동국대 강사)씨는 "그 자체로 단일하고 완성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팔리 경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다양한 경전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언어와 문헌에 대한 이해는 응용 불교학에도 적용된다. 안성두 씨는 "(세계적 유식학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경우 폭력이나 환경 등의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철저하게 문헌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기경전의 텍스트 속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교학과 응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헌학적 기초를 중시하면서도 나라별, 혹은 대학별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는 있어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우 '불교만 연구하면 불교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인도불교를 공부할 때도 불교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힌두교나 자이나교를 공부하는 것이 필수다. 오랜 문헌학적 연구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영국이 언어학과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강조한다면 독일은 원전비판과 원전 해석을 통해 텍스트의 성립과 전개 등을 다루는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문헌학적 연구가 가능할까? 필사본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문헌학적 훈련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대학원생의 질문에 안성두씨는 이렇게 말했다.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에 주문을 하면 즉시 보내준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한 카탈로그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필사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게 아니다. 다만 '수고'와 '비용'이 필요할 뿐이다. 일단 모든 종류의 카탈로그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9)

만물을 포용하는 단아함

려고 힘쓰던 때이다. 목호자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했다.

"이것은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렬합니다. 정성이 신성(神聖)에게 사무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삼보(三寶)보다 더 낫은 것이 없으니 만일 이것을 살라 발원한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왕녀가 위독하자 왕은 목호자를 불러서 향을 피우고 발원하게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나아갔다. 신라시대의 향은 중생과 부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병을 낫게 하는 영험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인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청동은입사용부문향완(국보 214호, 호암미술관 소장)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보면, 향로를 통해서 입금님의 만수무강을 받고 중생들이 깨달을 얻기를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때 역시 향의 기능에 대해서는 목호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홍왕사(興王寺)명 청동은입사용부문향완(국보 214호, 1289년, 호암미술관 소장)은 고려시대 향로 가운데 수작에 속한다. 이 향로는 다른 향로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단정한 기품과 풍요로움이 일품이다. 불룩하게 무리를 지은 원형의 받침에서 오목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른 받침 위에 다시 불룩한 곡선으로 노를 만들고 그 위에 옆으로 뻗은 직선으로 입술을 삼았다. 받침에는 고려 특유의, 영지모양의 구름을 가득 새겨 구름기둥을 표현하고, 그 위에 팔봉문의 테두리 안에 용과 봉황이 노니는 모습을 담고, 여백에는 맑고 명

◇홍왕사(興王寺)명 청동은입사용부문향완(국보 214호, 1289년, 호암미술관 소장). 이 향로는 총령왕 15년에 개성 홍왕사에서 지금의 금성이 전래군 부호장(富戶長) 김부와 개성의 김연수(金演壽)가 만들었다.

향로는 불교공예 가운데 가장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공양구이다. 부처님 앞에 바치는 향공양은 다른 그 무엇보다 진지하고 거룩하기에 향로 또한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향공양에 기울인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향로의 형상 그 자체에 숨김없이 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려시대만큼 향공양의 의식이 정교했던 시기도 드물 것

## '홍왕사 향완' 흰칠하고 단정한 기품 간직 풍요로운 외형, 한없는 포용력 느끼게 해

이다. 고려시대의 향로는 다른 시대를 능가하는 정성과 단아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눌지왕(재위기간 417~458) 때만 하더라도 향이 무엇인지 몰랐다. 중국 양(梁)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옷과 향을 보내왔는데, 눌지왕과 신하들은 그 향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 결국 전국에 수소문한 끝에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려 온 고구려 스님 목호자(墨胡子)가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다. 당시 목호자는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인 일선군(一善郡)에 있는 모례(毛禮)의 집 안에 땅 굴을 파고 살면서 신라에 불법을 전파하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일본종교연구소가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주요 학자들. 오른쪽부터 비바라 루쉬 박사, 로버스 버스웰 교수, 본각 스님, 춘평유 박사, 혜원 스님, 폴 그로너 교수. (사진 제공=본각 스님)

## "한·일·대만 비구니 연구 협력 여성불교 새역사 완성하자"

### 본각스님, 美 콜롬비아대 워크숍 참석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연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중세일본연구소 소장 비바라 루시가 지난 15일 '한국 비구니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고 돌아온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 스님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비구니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화사와 불교사, 인물사를 연구 조사하여 여성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세일본연구소가 이

끌면서 일본 황실에서 출가한 비구니를 연구해 온 비바라 루쉬 박사가 한국의 비구니연구소와 일본여성불교문화역사연구소 등을 초청해 이뤄졌다.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연구소에서 정리되는 비구니 관련 자료 공유 △일본 비구니 연구와 협력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오는 4월 일본 동경에 황실비구니사원의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사무소가 설치될 때 비바라 루쉬 박사와 만나 두 나라 비구니 연구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창녕 술정리탑 사리함 등 유물 14점 38년만에 중앙박물관 수장고서 햇볕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녕 출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발견 사리함기를 확인하고 있는 윤광수 씨(사진 오른쪽).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던 경남 창녕군 술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8세기 중엽) 발견 사리함과 사리병 등 주요 유물 14점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다는 것이 38년 만에 밝혀졌다. 박물관 측은 이 유물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불자와 스님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수장고를 뒤져 유물을 확인하는 소동을 벌였다.

처음 이 문제를 꺼낸 것은 한 평범한 불자였다. 경남 김해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윤광수(44)씨가 자신의 홈페이지(www.stupa.co.kr)에 '사리함을 찾습니다'란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전국의 탑을 찾아다니며 답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온 윤 씨는 지난 해 10월 우연히 국보 34호 지킴이로 있는 혜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으로부터 1965년 출토된 사리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련 기록을 뒤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12일 유물을 공개하며 "술정리 동3층석탑 유물 14점이 검은 보자기로 쓴 나무 상자 안에 담겨 박물관 수장고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시보관유물대장에만 기록돼 있고 곁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밝혔다.

사리함기를 직접 확인한 윤 씨는 "하루만 찾을 수 있는 문화재를 38년간 행방조차 몰랐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김해로 내려갔다.

3년 전 애들과 함께 할 여행으로 탑 답사를 택한 윤 씨는 부정확한 탑 위치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리상태 부실을 관공서에 질의해 바로잡게 하는 '문화유산 지킴이'역을 해오고 있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8-7565 E-mail: minjoks@chollian.net

### 문수기도공덕

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해가 총명해지고 맑아진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가피를 입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 관음기도공덕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창복 역람/ 4x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 지장기도공덕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

권립부 역람/ 4x6판 양장/ 224쪽/ 값 6,500원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의 실용적인 책이다.

- 불행, 초월의심은 무엇일까요? 하는 법이 뭐냐?
- 불행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 공양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 라벨보통은 어떤 공양이냐?
- 천생과 내생은 정말 있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320쪽/ 값 7,500원

### 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생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려 말고 원앙을 원앙으로 길지 말라.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180쪽/ 값 6,000원

### 죽은 이를 위하여 49자를 지내는 까닭

##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268쪽/ 값 6,000원

### 간단명료하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100답

불교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이 되는 문체, 100가지를 선정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설한 입문서입니다.

누구나 전자개산기 같은 이 책 한권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어떤 질이든 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320쪽/ 값 6,000원

###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

##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참혹은 고통과 같은 것이다. 참혹은 남끼로만 같고 같은 것이다. 참혹은 욕을 쫓고 벌레와 같은 것이다. 참혹은 바람과 같고 여름과 같고 깊고 얇고 같은 것이다.

정판스님 역람/ 4x6판 양장/ 170쪽/ 값 6,000원